



제목	Byzantium in the Iconoclast Era, c. 680-850: A History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Cambridge University Press
발행일	2011. 1. 6.
저자	Leslie Brubaker and John Haldon
출판도시	Cambridge
페이지수	918
ISBN 또는 ISSN	978-0521430937

내용 요약

이 책은 7세기 말부터 9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비잔틴제국을 연구한 책으로서, 이 시기를 특징짓는 성상파괴논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. 7세기 말에서 9세기 중반의 비잔틴제국은, 역사에 갓 등장한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토를 빼앗기는 비참한 상황에서 회복하여 좀 더 작고 단단하게 조직된 국가였다. 성상파괴논쟁은 7세기 초 비잔틴 제국에서 시작하여 거의 120년에 걸쳐 지속되었다. 이 책은 군사, 사회, 정치 분야의 역사가인 Haldon과 예술사가인 Brubaker의 공동 저작답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 시기를 조명한다. 또한 이 책은 중세 역사에서 가장 정의하기 어려우면서도 매혹적인 시기인 성상파괴논쟁 기간을 고찰할 영어판 최초의 연구서라고 평가된다.

이 책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 책 앞부분 5개의 장에서는 성상파괴논쟁의 질문과 함께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. 성상파괴논쟁은 726년 황제 레오 3세가 시작했으며 9세기 중반까지 비잔틴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었다. 이 책 뒷부분 6개의 장은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, 제도적 접근과 같은 주제별 접근을 한다.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성상파괴논쟁이 ‘재현’에 대한 논쟁이었으며, ‘이슬람의 도전에 대한 비잔틴의 대응’이었다고 주장한다.